

4

**‘백범’이라는 이름엔
어떤 뜻이 있나요?**

이름에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말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 줍니다. 김구의 이름도 그랬습니다.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달라졌고, 여기에는 저마다 그 시절의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은 이름은 창암(昌巖)이었습니다. 바위처럼 굳세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열여덟 살에 동학에 들어가면서는 스스로 이름을 창수(昌洙)로 바꾸었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막힘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치하포 의거 당시 주막 벽에 남긴 포고문에도 ‘김창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과 마곡사 시절을 지나며 다시 ‘구(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거북 ‘구’ 자였습니다.

이름이 마지막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주권을 빼앗긴 뒤, 독립운동을 이



어가던 김구는 ‘안악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있던 김구는 일제가 만든 호적에 적힌 이름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거북 구(龜)’를 ‘아홉 구(九)’로 바꾸었습니다. 개명을 통해 저항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때 만든 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白凡)’입니다.

‘백범’의 뜻은 조금 예상 밖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름이나 호를 지을 때 멋있고 높아 보이는 뜻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김

구는 오히려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와 이어지는 이름을 골랐습니다. ‘백’은 백정(白丁)의 ‘백(白)’에서 왔습니다. 백정은 조선 시대에 심한 차별을 받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분과 직업 때문에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범’은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범부의 ‘범(凡)’입니다. 범부(凡夫)는 특별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백범’은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김구는 왜 이런 이름을 골랐을까요? 김구는 백정이나 범부라도 애국심을 가져야 완전한 독립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몇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 모두가 그 마음을 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립은 위대한 영웅 몇 사람의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분 차별이 남아 있던 사회에서 자랐고, 동학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사람은 누구나 배움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느꼈습니다. 마

곡사에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바꾸는 길에 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안에서, 일제의 호적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겠다는 결심과 함께 이 모든 경험을 ‘백범’이라는 두 글자에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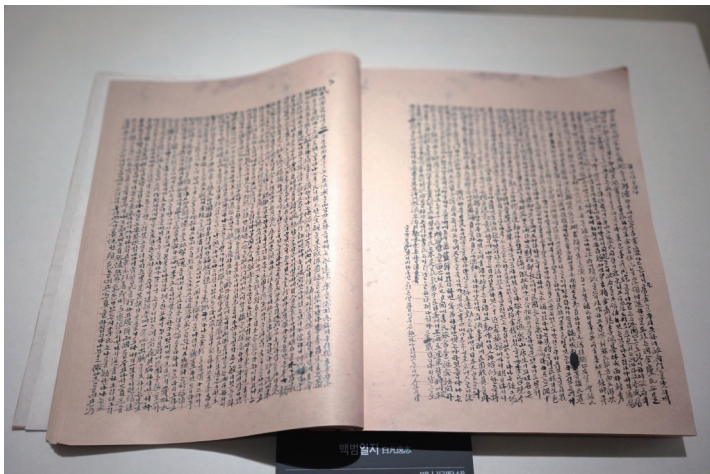
함께 생각해오

- ‘백범’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이나 별명을 붙인다면, 거기에 어떤 뜻을 담고 싶나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김구는 왜 ‘문화의 힘’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평생 겪은 일을 떠올려 보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역사를 바꾸고, 이름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벌을 받았고, ‘창씨개명’으로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김구는 이런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총칼로 몸을 지배하는 것보다, 문화를 지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흔드는 일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문화가 살아 있으면 민족도 살아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망명지에서 임시 정부는 문화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다.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설립한 상하이 인성학교에서 한글을 가



『백범일지』.

르치는 등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이어 갔습니다. 비록 몸은 조국을 떠나 있어도 우리말이 살아 있고, 우리 역사가 전해지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지키고, 노래를 기억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김구에게 문화는 단지 예술이나 음악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약자를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꽃필 때 그 나라는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오늘날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은 휴전선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마음의 경계가 더 크고 단단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허무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김구는 총이 아니라 언어와 음악, 이야기와 공감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속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결국 경계를 허무는 힘도 문화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구가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갈등을 힘이 아니라 소통으로 풀어내려는 인내가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이들이 모이면 사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면 나라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김구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마지막 순간까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함께 생각해오

- 오늘날 마음의 경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 문화는 갈등의 경계를 허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감동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한류’ 혹은 ‘케이(K) 문화’로 불리며,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편으로 시작한 문화의 흐름이 다리가 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가 떠오릅니다. 당시 ‘케이팝’을 떠올렸을 리는 없지만, 그가 말한 문화의 힘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총이나 돈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은 단지 유행과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다운 문화가 세계의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김구는 문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오늘날 케이 문화에 적용하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거기에 담긴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지 멋지거나 흥미로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다름을 인정하자는 이야기, 청소년들의 불안과 방황을 솔직하게 담은 가사 등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전달된 것입니다.

김구가 망명지에서도 한글과 한국의 역사를 지키려 애썼던 일, 임시 정부가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자 쏟았던 노력 등은 오늘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 문화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가장 우리답게 지켜 낸 노력이 결국 세계로 이어지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분단은 계속 되고, 사회 안의 불평등과 갈등도 여전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는 것과 별개로,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구가 원한 것은 세계의 유행을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문화의 힘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다운 가치에서 나옵니다.





함께 생각해오

-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오늘날 김구의 꿈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